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7, No.1 (Jan. 2007) pp.176-186

영상물 제작을 위한 고증 의상 디자인 연구

-13-14세기의 고려양과 몽골풍의 귀부녀 복식을 중심으로-

최 해 율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A Study on the Design of Historical Costume for Making Movie & Multimedia

-Focused on Rich Women's Costume of Goryeo-Yang and Mongol-Pung in the 13th to 14th Century-

Hai-Yaul Choi
Seni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2005. 12. 12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upper class women's costume of 'Mongol-pung' and 'Goryeo-yang' in a civilization-exchanged period between Mongolia and Korea, for making movie or soap opera costume and historical animation.

'Mongol-pung' was a cultural influence from Mogolia to Korea. For example, sleeveless bi-gap (比甲) and half-sleeved dap-ho(搭忽) were put on by many women at that time. On the basis of old literature, I suggest a 'Mongol-pung' costume as a set of seeran-chulrik(膝欄 terlig), embroidered bigap, dapho of meat-red color for women. 'Goryeo-yang' was a cultural influence from Korea to Mongolia. Due to old poem of Yuan, 'Short outer jacket with square neckline, half sleeves, and clear color(方領過腰半臂)' was a representative of 'Goryeo-yang' in Mongolian royal women's costumes. Many women were dressed in it with short inner jacket and wide skirt.

In the case of making soap opera costume, the budget of broadcasting station, appearence of nowaday's actor and actress, similarity between old fabric and modern fabric must be considered altogether.

Key words: soap opera costume(드라마의상), Mongol-pung(몰골풍), Goryeo-yang(고려양), bi-gap(비갑), terlig(철릭), Short outer jacket with squre neckline(方領過腰半臂)

Hai-Yaul Choi, e-mail: yoolchs@yahoo.co.kr

Ⅰ. 서론

고증 패션 디자인은, 캐릭터의 신분에 맞는 올바른 의상을 전공자가 고증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현대의 직물과 기술로 재현하여 사극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하여 디자인하는 작업이다.

고증 디자인을 행할 때 작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공자가 제시한 자료와 작업자가 제작한 결과물과의 괴리감', '한정되어 있는 예산', '고증된 자료가 현대 연기자들의 용모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1] 따라서, 고증 디자인은 정확한 고증 뿐 아니라 예산을 고려하면서도 현대적 체형과 용모에 맞는 의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고려양(高麗樣)'과 '몽골풍(蒙骨風)'은 13-14세기 무렵에 고려와 몽골이 주고받은 문화적 상호영향을 뜻하며, 여러 매체에서 흥미로운 이슈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토털 패션 개념으로서의 고려양 및 몽골풍 의상의 종합적인 고증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므로, 본문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귀부녀 복식을 중심으로 13-14세기의 고려양 및 몽골풍의 전신 착장 모습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 영상물의 유행 성향을 고려하며, 의상을 제작하는 작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와 재료를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고려양와 몽골풍의 고증 디자인 작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고려 후기의 귀부녀 복식, 원을 비롯한 몽골계 국가의 부녀복식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몽골과 고려의 고문헌과 불화, 고려의 불복장 유물 및 조선 초중기의 출토유물 등을 참고하였다.

Ⅱ. 시대적 배경

元 울르스(1260-1368)는 칭기스한의 손자인 쿠빌라이에 의해 제정된 국가명으로서, 13세기 무렵의 여러 몽골 국가 중 중원지역에 자리잡았던 나라였고 고려(高麗)와 지속적으로 투쟁과 교류를 계속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원은 안정기를 맞아 유목생활로 얻어진 고유 복식을 유지하는 한편 한족(漢族)과 고려, 위구르와 서역 등 주변국가의 복식 및 재료도 수용했다.[2] 이는 중원의 새로운 통치자로서의 정체성 및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복식이 필요했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1261년경 30여년 간의 항쟁을 끝낸 이후 고려와 원은 상호간에 활발한 문화교류를 가졌다. 이 시기에 양국간에 교환되었던 문화적 영향은 각각 '고려양'과 '몽골풍'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원의 강성한 군사력을 인식한 고려의 몽골풍 수용과 아울러, 몽골 측에서도 원으로 끌려간 공녀(貢女) 혹은 고려 학자들에 의해 고려양이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의 쇠퇴기에 고려에서는 그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되었다. 고려 이후 조선의 복식은 몽골의 영향에서 차츰 멀어지게 되었는데, 댕기, 연지, 장도 등등 시각적으로 서로 유사한 유물들이 17세기 경의 조선(朝鮮)과 몽골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그러나 연지나 장도는 몽골 침입 이전에도 사용예가 나타났고[3], 청(淸) 간섭기를 거친 몽골복식은 청 복식과도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Ⅲ. 고려양과 몽골풍의 여자복식 고증 패션 디자인

1. 몽골풍(蒙骨風) 여자복식의 고증 패션 디자인

여기에서의 몽골풍은 복식을 중심으로 고려문화에 미친 몽골의 영향을 말한다. 특히 특이한 긴 세움장식을 얹은 몽골 부인들의 필수 예모였던 고고관(bogtag)은 그 기원과 전파에 관해 논란이 많은 복식이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왕족여인들이 몽골에서 보내온 고고관을 궁중 행사시에 착용한 경우[4][5] 외에 일반부인의 예모로 널리 전파되었다는 당시의 확실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고고관은 궁중용으로 구분을 두고, 13-14세기의 일반적인 몽골풍 여자 복식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 비갑(돕지털릭), 답호, 철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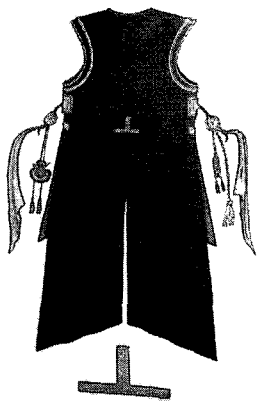
유목생활이 기반이었던 중세 몽골인들은, 몽골 본토의 추위를 막기 위해 무릎을 덮는 길이에 좁고 여밈이 많은 델(長袍: deel)을 남녀공용의 기본복식으로 착용하고 있었다. 특히 허리에 잔주름을 잡은 몽골식 융복(戎服:terlig: telig)은 13세기 무렵의 몽골을 여행한 외지인들의 기행문에서 종종 언급되었다. 이것은 무릎을 덮어주되 승마의 편안함을 더하기 위한 스타일이었고, 고려로 도입되어 융복인 '철릭'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한 갈래인 원 울르스는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지역으로 기반을 옮겨 완성되었고, 이에 맞추어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는 비갑(比甲)이었다. 이는 쿠빌라이의 황후인 챠바이(Chabai) 카툰이 고안한 활동적인 외투로서 소매와 여밈이 없는 옷[6]이었다. 뒷길이가 앞길이보다 훨씬 길어서 옆트임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며, 긴 옷자락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뒤쪽을 덮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승마 및 활쏘기에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었으므로, 당시의 유행을 선도했던 옷으로도 볼 수 있다.

고려 말의 기록인 『박통사언해』에서도 비갑이 언급되었는데, '맞닿는 깃(對襟)이고 포개어 잡은 주름(襞積)을 넣었으며, 우리나라의 돕지털릭이다. 부녀자들도 이 제도를 따라서 단오(短襖)를 입고 比甲이라 불렀는데, 일반적인 명칭은 답호(搭護)였다'[7]고 한다. 그 밖에 『박통사언해』에는 '명록색의 융을 두르고 흉배문[8] 수를 놓은 비갑(明綠抹絨胸背的比甲)' 및 '팔보를 새기고 굵은 구름문을 직금한 라 비갑(嵌八寶骨朶雲織金羅比甲)', 『노걸대언해』에는 '흑록(黑綠)의 저사비갑(紵絲比甲)' 등이 묘사되어 있었다.

'답호(搭護)'는 한국에서는 민소매와 반소매 외투에 모두 해당되는 명칭이지만, 13-14세기의 것이라면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에서 발견된 반소매의 직령 답호의 형태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계 국가 건설기 무렵에 귀족의 연회복이나 정장으로 델 혹은 철릭과 함께 착용되던 겉옷이 이러한 형태였다. 〈그림 1〉[9] 여자용으로는 『박통사언해』의 내용 중에 육 홍색(肉紅色)의 부인용 더그레(婦人搭忽)가 나타났다.

〈그림 1〉 〈집사〉의 삽화: 13세기 몽골 귀족의 연회복식 (原色 · 圖說 大世界史 2--아시아 國家의 展開, p. 323)



〈그림 2〉 울드 족 부인 우지 (Mishigdorjyn Amgalan, The 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Mongolia, p. 63)

위를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비갑의 재료인 흉배문 자수, 팔보문과 운문을 새긴 직금라, 염색한 융 등을 보면 이는 융복일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정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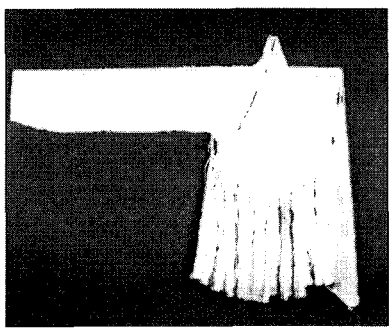
둘째, 소매가 없는 비갑과 반소매의 겉옷이었을 답호가 모두 '비갑'으로 불리웠으며, 고려 말과 조선초의 여자들도 착용하였다.

셋째, 『몽사』와 『박통사언해』를 종합해 보면 13-14세기의 비갑은 맞닿는 깃에 앞뒷길이가 차이나는 연미복 스타일이며, 상(裳)이 있었으며 주름(襞積)을 넣었던 소매없는 겉옷이었다. 이는 18세기 전후의 몽골 부인정장 중 허리주름을 넣은 '우지(УУЖ:uudji)'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이며, 특히 서몽골 울드(Uu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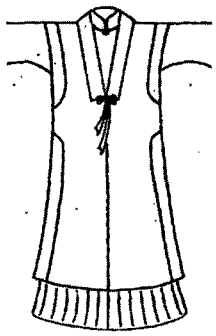
족의 부인 우지는 앞뒷길이의 차이가 많아 『몽사』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이었다.〈그림 2〉[10] 그러나 현존하는 한국의 복식유물 중에서는 액주름을 넣은 더그레가 비갑과 가장 유사하며, 몽골 우지처럼 허리주름을 넣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13-14세기의 비갑 스타일은 한국에서는 일시적인 몽골풍 여자 겉옷으로 입혀졌을 가능성이 크다.

『박통사언해』에서는 '이 明綠빛의 통수슬란 수놓은 것으로는 텰릭을 짓고, 이 짙은 肉紅빛에 벽드르에 花鳳紋을 놓은 紵絲로는 비갑(比甲)을 짓고, 이 맨드라미 빛에 四花紋을 수놓은 것으로는 더그레(搭護)를 짓고...'[11]라 하여, 철릭, 비갑, 답호를 한 세트의 의복처럼 묘사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그림 3〉의 충북 청원군 김씨묘 철릭처럼 여자용 철릭이 발견되었으므로[12], 고려 여자도 위와 같은 의복을 승마 및 민첩한 활동을 할 때 갖추어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몽골 부인 우지에 넣은 주름도 철릭의 주름처럼 승마할 때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다.[13] 다만 통수슬란, 화봉문 및 사화문 비단은 원의 귀족들이 착용했던 의복재료와 매우 유사하며, 부유층의 과시용 의복재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급 비단으로 만든 비갑, 답호, 철릭을 조합하여, 고려 말기 귀부녀의 활동적인 몽골풍 외출복으로 고증하였다. 다만 고려 여자복식의 특성 중 하나가 풍성한 치마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인용으로는 명대의 복식처럼 치마와 저고리 위에 비갑을 입는 버전 한 가지를 더 제시하려고 한다. 〈그림 4〉[14]



〈그림 3〉 청주 순천김씨 모시철릭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소재
출처:http://www.ocp.go.kr:9000/)



〈그림 4〉 명대 비갑
(華梅, 中國服裝史, p.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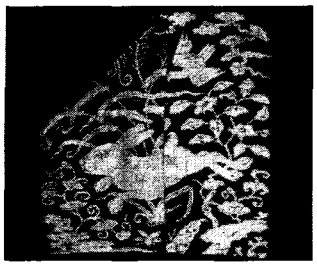
2) 구체적인 고증 패션 디자인: 고려 부유층 여인의 몽골풍 의상

체형은 현대 연기자의 인체 비례를 고려하여 약 7-8등신으로 표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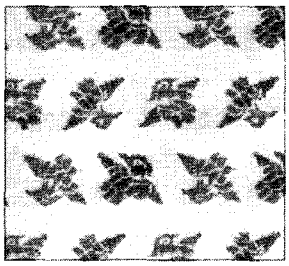
주문제작으로 직물을 짜면 옛 문양을 재현할 수 있으나 비용이 초과될 우려가 많으므로, 되도록 시중 직물을 구입하거나 자수, 금박을 이용한다.[15] 특히 슬란이나 홍배문과 같은 특정 부분은 동물이나 새 문양을 대담하게 짜넣었던 원대 금직단[16]의 느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헌의 기록을 따라, 비갑은 문단 바탕 위에 홍배문 자수를 올리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홍배문의 자수는 원의 토끼문 홍배와 고려 불복장의 조문능 문양을 혼합하여,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를 이룬 느낌을 주었다. 〈그림 5〉[17],〈그림 6〉[18],〈그림 7〉

비갑 형태는 18세기 이후의 몽골 우지의 모양을 참조하되, 14세기 무렵의 몽골풍이므로 원대에 제정된 모양대로 앞뒷길이에 차이가 나는 모양으로 고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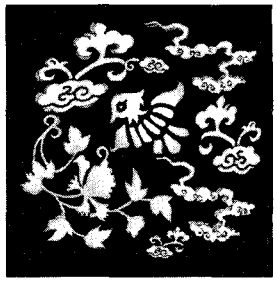
답호는 『박통사언해』를 따라 부녀자 용인 육홍색으로 제작하며, 철릭이나 비갑도 이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조합하였다. 의상들이 겹쳐지므로 철릭과 답호는 〈그림 8〉처럼 너무 두껍지 않은 시중 비단이나 명주를 구입하여 제작하며, 13-14세기의 나시치 금직단과 비슷한 느낌의 동물문양을 스란용 금박 문양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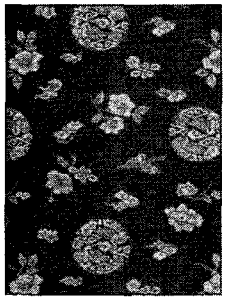
〈그림 5〉 원대 토끼문 흉배
(黃金・絲紬・靑花瓷-FASCINATIN G ARTS OF MARCO POLO EAR-, 개인소장,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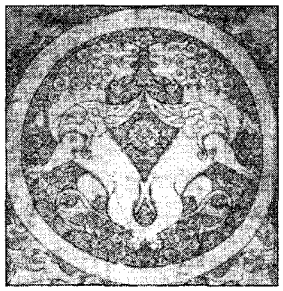
〈그림 6〉 문수사 불복장 탑자 형식 조문능 직물 (심연옥, 至心歸命禮 -불복장 직물 문양집, p. 16)



〈그림 7〉 흉배문 자수 디자인 (by 최해율)



〈그림 8〉 짙은 홍색의 답호용 금직단 (구입처: 실크파라)



〈그림 9〉 나시치 문양
(黃金・絲紬・靑花瓷-FASCIN ATING ARTS OF MARCO POLO EAR-, p. 14)

〈그림 10〉 고려 부유층 처녀의 몽골풍 의상 디자인 (고증 및 일러스트 by 최해율)

〈그림 11〉 고려 부유층 부인의 몽골풍 비갑과 고려식 치마 디자인(고증 및 일러스트 by 최해율)

철릭, 답호, 비갑 세 가지를 모두 겹쳐 입으면 활동에 불편을 주기 쉬우므로, 철릭과 답호, 혹은 철릭과 소매없는 비갑을 조합하여 착용시키도록 한다. 부인의 경우에는 치마와 저고리 위에 비갑을 입을 수도 있다.

몽골풍의 특징은 남자와 미혼여자의 복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었으므로, 몽골풍의 처녀 복장에도 양쪽으로 땋은 몽골식 '시벨퀼' 헤어스타일 및 몽골인들이 즐겼던 tana 구슬 귀걸이를 응용하였다. 그러나 고려 부인은 여러 초상과 불화에 묘사된 것처럼 머리를 뒤로 감아 말아올리고 처녀는 『고려도경』의 기록처럼 붉은 머리끈을 써서, 너무 몽골 양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롭게 만든다. 아울러 챠뱌이 황후가 비갑과 함께 고안한 챙 달린 모자[20]를 소품으로 포함시켰다.

허리띠에 작은 칼과 부싯돌 등의 필수품을 휴대하는 것은 5세기 무렵부터 북방 기마민족들의 공통적인 풍습이었다.[21] 몽골풍이나 고려양의 귀부녀 복식에도 작은 장도류를 장신구처럼 허리춤에 다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메이크업의 경우, 13세기 무렵의 몽골 여인들은 붉은 안료를 매우 짙게 펴바르는 화장법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다.[22] 그러나 고려 후기의 불화 및 초상화에서 보여지듯 흰 분바르기를 즐기고 색조화장을 선호하지 않았던 고려[23]에서는 붉고 진한 화장이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화장법은 고려의 것을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몽골풍의 귀부녀 고증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림 10〉,〈그림 11〉

2. 고려양(高麗樣) 여자복식의 고증 패션 디자인

1) 고려양 여자복식에 대한 분석

여기서의 고려양은 고려에서 몽골로 건너간 복식문화 전반을 뜻한다. 원말에는 고려 출신 공녀와 학자들로 인해 원의 궁녀 대부분은 고려여인이었고, 사방에 고려 복식이 넘쳤다고 한다.[24] 여자복식에서의 고려양을 가장 명확하게 묘사한 것은 고려출신기 황후의 세력이 강성했던 원 후기 궁중의 상황을 노래한 『宮中詞』이다. 이 시에서의 고려양은 궁의(宮衣)였고, 원 왕실의 새로운 유행이었으며, 方領이고 허리를 지나는 반비(半臂)였고, 서로 경쟁하듯 지어서 입을 만큼 선호되던 여자 복식[25]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원과 고려 궁중 귀부녀의 일상예복을 고증할 경우에 적합한 의복이라 할 수 있다.

伯孜克里克 석굴벽화에 그려진 方領반비처럼, 일반적으로 몽골풍의 반비는 한족(漢族)의 것에 비하여 좁고 길이가 길었던 것이 특징이었다.[26] 〈그림 12〉[27] 이것은 몽골 유목복식 중 겉옷의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했는데, 이에 비하여 고려양은 '방령과 요반비'이므로 상대적으로 짧은 반비였고, 짧은 상의는 오히려 고려 복식의 특징으로 분류된다.[28]

또한 몽골 복식에서의 '방령(方領)'이라면 모양 자체가 네모난 목둘레이거나, 혹은 곧은 깃이 교차하며 네모난 앞여밈을 만드는 경우[29]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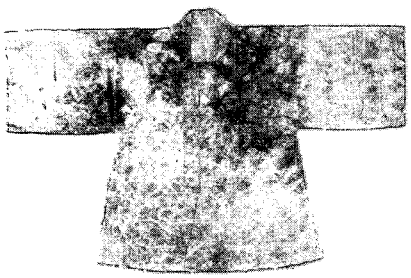
박두이는 넉넉한 반비에 곧은 맞깃과 네모난 동정을 부착한 것을 '방령'으로 보며 궁중 고려양의 양식으로 추정하고 있다.[30] 원대의 회화 자료에서 이러한 반비가 다수 나타나므로 이것이 고려양의 반비일 가능성은 높다. 〈그림 13〉[31] 다만 漢族 여자들도 직령이 달린 넉넉한 반비를 즐겨 입었는데[32], 이것이 변형된 한족의 반비인지, 몽골 귀부인의 궁중 유행인 고려양을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또한 방령이 말 그대로 몽골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네모난 목둘레'를 말한 것이라면, 고려양 반비는 조선 중기 이응해 장군(1547-1626)묘에서 발견된 반소매 方領衣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네모난 깃 내부에 상침장식을 하여 이중깃처럼 만들었고, 앞섶이 많이 겹쳐지지 않는 모양이었다.〈그림 14〉[33] 한국에 실물로 남아있는 유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양의 방령반비는 길이가 더 짧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비슷한 모양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방령의를 비롯한 조선 초중기의 출토복식 유물들은 바탕과 같은 색으로 문양을 도드라지게 짠 문단이거나 금직단 종류가 많았다. 그러나 『天祿識餘』에

〈그림 12〉 伯孜克里克석굴벽화의
몽골여자 공양인
(李肖冰,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p. 246)

〈그림 13〉 內蒙骨赤峯元寶山元墓벽화
원대 귀부인의 반비
(中國服飾 5000년, p. 342)



〈그림 14〉 이응해 장군묘 출토 방령의
(충주박물관,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p. 18)

는 '모든 嬪은 碧色 鸂鶒무늬가 새겨진 朱綃의 半袖衫을 착용한다.(諸嬪衣碧鸂鶒朱綃半袖衫)'[34] 라고 명시되었다. 이는 당시의 귀부인들이 반비용으로 바탕과 문양의 색상대비가 강렬한 직물을 즐겼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독 문양을 탑을 쌓는 형식으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것은 고려시대 문양의 큰 특징이며 元에서도 매우 유행한 양식인데, 특히 직금직물인 금탑자(金塔子)에서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므로[35] 고려양 반비를 만들 때는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13-14세기의 몽골 궁중에서는 길고 좁은 유목 스타일의 몽골 델(長袍)에 화려한 재료를 조합하여 의식용 연회복으로 착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원 후기에 유행한 고려양은 포 없이 겉옷으로 반비와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던 것으로, 단아하고 화사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간편한 귀부인의 궁중 평상 예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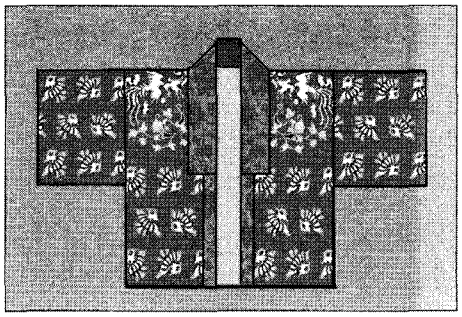
2) 구체적인 고증 패션 디자인: 원 귀부인의 고려양 의상

체형은 현대의 연기자나 모델들의 인체 비례인 약 7-8등신에 맞추도록 한다.

직물 역시 시중에서 구입하되, 금빛 단독 무늬가 탑자 형식으로 많이 사용된 고려직물의 특징을 살린 금직단, 금박, 금사 자수를 이용하도록 한다. 미려한 고려복식의 실루엣을 살려 두껍지 않은 비단이나 명주로 제작하며, 자수 문양은 원의 반비와 고려 불복장 직물에 많이 나타난 화문, 봉황문, 기타 조문(鳥紋) 종류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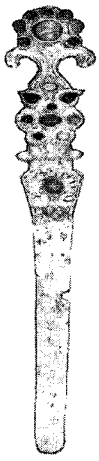
고려 중기의 『고려도경』에 언급된 남자용 포와 닮은 상의, 넓은 치마[36] 등의 여자복식은 고려 말의 초상화나 불화 등에서도 계승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고려양 여자복식이라면 방령반비, 넓은 치마, 넉넉한 상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려도경』에 따라 고려 여자복식의 특성인 풍성한 황색 치마를 기본으로 다른 의복을 조화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고려양인 방령반비는, 맞깃과 네모난 동정을 가진 반비 및 네모난 목둘레를 가진 반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네모난 목둘레의 반비는 여밈 분량이 적으므로 단추 4개를 부착하며 여미고[37], 이응해 장군의 유물 중 마치 철릭처럼 반비의 섶에 활동성을 고려한 듯한 주름이 있는 형태를 응용하였다. 〈그림 15〉, 〈그림 16〉



〈그림 15〉 고려양 방령반비 디자인 1
(by 최해율)

〈그림 16〉 고려양 방령반비 디자인 2
(by 최해율)



〈그림 17〉 봉잠
(한국복식
2천년, p. 47)

〈그림 18〉 하연부인의
초상(일본 천리대도서관 소장)

〈그림 19〉 원 순종
쏰濟황후의 초상
(타이뻬이 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20〉 방령반비, 넉넉한 저고리,
풍성한 치마의 고려양 복식 디자인
(고증 및 일러스트 by 최해율)

귀부인의 평상예복이므로, 헤어스타일은 가체를 사용한 얹은 머리를 응용하거나, 머리를 뒤로 말아 올리도록 한다. 대표적인 장신구로는 하연부인의 초상화를 참조하여, 중앙에 봉황문과 연화문이 새겨지고 보석을 올린 고려 금제봉잠(鳳簪)을 선택하였다. 〈그림 17〉[38]〈그림 18〉[39] 아울러 『고려도경』에서 고려 여인들이 즐겼다고 언급한 향낭(香囊)과 금탁(金鐸)[40]을 부착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장신구는 가격이 저렴한 모조 귀금속으로 제작하거나 비슷한 모양의 장신구를 시중에서 구입한다.

몽골계의 여인들의 진하고 붉은 화장은 흉노(匈奴)시대의 '연지(燕支)'부터 시작되었다. 점을 찍는 형식의 연지는 고구려와 몽골계의 북방기마민족들이 공유했던 의례용 화장법으로서, 13-14세기에는

예식 등의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의 귀부인을 묘사한 회화들을 보면 이전에 즐겨 바르던 짙고 붉은 안료보다 좀더 엷은 연지분을 펴바른 온화한 붉은 안색이 선호되었고, 이는 흰 분을 즐기던 고려 및 주변국 여인들의 화장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려양 복식을 입은 몽골 귀부인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흰 안색보다는 원 순종 答濟황후의 초상처럼 몽골인들이 선호했던 붉은 안색의 이미지를 살려,〈그림 19〉[41] 약간의 발그레한 색조를 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고려양의 귀부녀 고증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림 20〉

활동과 기마에 편한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의복에서 주로 나타나며, 여기에 화려한 재료가 곁들여져 경쾌하고도 부유층의 정장에 알맞은 의복으로 변형되었다. 이들 의복은 형태의 변화를 거쳐 조선시대까지도 계승되었다. '고려양'은 원말 궁중의 공녀와 학자들 및 고려출신 기 황후의 영향으로 유행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자복식으로는 방령반비 및 넉넉한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의 일습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권력과 새로운 유행에 민감했던 원대 귀부인들의 경쟁심리에 의하여, 단아하며 아름다운 궁중 평상예복의 의미로 널리 착용되었다.

본문에서는 사극이나 애니메이션의 의상 디자인 자료로서 몽골풍과 고려양의 귀부녀 복식을 고증하였는데, 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 3〉 고려양과 몽골풍 고증 패션 디자인의 종류와 재료

구분	고려양	몽골풍	
착용자	원 부유층 귀부인 및 고려출신 귀부인 (궁중출입이 가능한 신분)	고려 부유층 처녀	고려 부유층 귀부인
용도	평상예복	승마용, 외출복	승마용, 외출복
체형	7-8등신	7-8등신	
대표복식	方領반비, 풍성한 치마, 저고리	비갑, 답호, 철릭	비갑, 답호, 철릭 비갑, 치마, 저고리
직물 및 색상	바탕색이 짙고 선명한 금직단(반비), 화조문 자수를 놓은 견 및 공단(반비), 황견 혹은 황색 금직단(치마), 견직(저고리)	흉배 자수를 놓은 견직(비갑), 육홍색 바탕의 단위문 금직단 (답호), 금박 스란을 넣은 명주 및 모시(철릭)	비갑, 답호, 철릭은 처녀의 몽골풍을, 치마와 저고리는 고려양을 참조
헤어 스타일	뒤로 틀어올린 머리, 가체를 이용한 얹은머리	양옆으로 땋아 묶은 머리(몽골 시볘뢸 응용)	가체 및 뒤로 틀어올린 머리(고려 스타일)
장신구와 소품	금제 귀걸이, 고려 금제봉잠 이미테이션, 『高麗圖經』의 붉은 댕기, 노리개 스타일의 금방울과 향낭, 작은 장도류	tana 귀걸이, 챙 달린 모자, 붉은 댕기, 작은 장도류	tana 귀걸이, 붉은 댕기, 작은 장도류
메이크업	내츄럴 톤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발그레한 볼터치를 약간 강조)	내츄럴 톤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흰 안색을 좀더 강조)	

V. 결론

정확하면서도 실용적이고 현대 영상물에 어울리는 고증 패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식 전공자의 세심한 연구와 지속적인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고려 여자복식의 '몽골풍'은 철릭, 답호, 비갑 등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정확한 고증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현대 연기자들의 인체 비율과 현대적인 이목구비에 어울리는 의복 스타일과 메이크업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사료에 언급된 것과 가장 유사한 시중직물

및 재료를 선택한다. 넷째, 제시된 고증 디자인의 결과물들이 영상물콘텐츠의 내용에 잘 어울리며, 각 캐릭터 및 민족복식의 특성과 장점을 잘 드러내야 한다.

고증 패션 디자인에서는 현대의 제작여건과 착용자의 외모를 중요시하되 옛 복식유물의 느낌을 적절히 살릴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료를 연구하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최대한 고증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콘텐츠 제작의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은 전공자의 의무로서,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후속 연구에서 지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2005년 6월-2006년 3월, 사극의상 고증 관련 학자, 교수 및 방송국 AD들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함.
2) 戴爭 編著 (1993). **中國古代服飾簡史**, 南天書局有限公司, p. 179.
3) 김문숙 (2000). **고려시대 원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 179-181.
4) 『高麗史』 卷 八十九 列傳 第 二 后妃 二: 元皇太后 遣使賜妃姑姑 姑姑蒙古婦人冠名 時王有寵於皇太后 故請之 妃戴姑姑 宴元使
5) 『高麗史』 卷 八十九 列傳 第 二 后妃 二: 後元遣使 賜妃姑姑 百僚宴妃弟用幣以賀
6) 『蒙史』 十九 后妃列傳 第 一: 又製一衣 前有裳無裙 後長倍前 亦無領褎 綴以兩襻 謂之比甲 便騎射 時多倣之
7) 『朴通事諺解』上, 奎章閣叢書 第 八, 明綠抹絨胸背的比甲 註: ....無袖對襟爲褻積者曰比甲 卽本國돕지털릭 婦女亦依此制 爲短褓着之亦曰比甲通稱搭護
8) 일 카한국의 역사서 『集史』에 삽입된 몽골의 귀부인이나 귀족의 삽화를 보면, 龍紋, 唐草紋과 花草紋이 어깨와 가슴부위에 흉배 형태로 나타나 있다. 묘사된 문양 스타일 자체는 페르시아 예술의 영향이 강하다.
(최해율 (2001). **몽골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2.)
9) 太極출판사 편 (1982). 原色·圖說 大世界史 2--아시아 國家의 展開. 太極출판사, p. 323.
10) Mishigdorjyn Amgalan저, N.DORJGOTOV 역 (2000). *The 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mongolia.* MONSUDAR, p. 63.
11) 『朴通事諺解』 中,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12) 문화재청 (2007.01.04), **청주출토 순천김씨의복 모시철릭**. 중요민속자료 109-1-8호, 자료출처: http://www.ocp.go.kr:9000/n__dasencgi/full.cgi?v__kw__str=&v__db__query=A1%3a18&v__db=1&v__doc__no=00003527&v__dblist=1&v__start__num=461&v__disp__type=2
13) 몽골국립역사박물관 난슬마 부관장(2000)이 제공한 설명을 참조한 내용.
14) 華梅 (1989). **中國服裝史**. 人民美術出版社, p. 71.
15) 고증을 거쳐 짜여진 시중 금직단의 문양은 주로 연화문, 석류문, 장미문이거나 단위문 형식으로 된 원문이 많았고, 90cm당 약 2만원 정도의 가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직물시장 현장조사: 2006년 10월-12월 기준)
16)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바그다드(Baudac)에는 금실과 비단으로 짠 여러 종류의 옷감이 있었고 동물이나 새의 무늬로 장식된 여러종류의 나시치(nascici), 낙크(nac), 크레모시(cremosi) 등이 직조되었다.'고 언급했다. 김호동(2000)에 의하면 나시치는 금실로 동물과 새의 문양을 넣어 짠 옷감으로서 『원사』에 納失失, 納失石, 納失思로 표기되었다. cremosi는 진홍색 벨벳을 가리킨다.
(김호동 역주 (2000).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출판사, p. 112.)
17) 趙豊, 金琳 主編 (2005). **黃金·絲綢·青花瓷 -FASCINATING ARTS OF MARCO POLO EAR-**, 香港: 藝紗堂服飾出版 , p. 50.
18) 심연옥 (2004). **至心歸命禮 -불복장 직물 문양집**, 수덕사 근역성보관, p. 16.
19) 趙豊, 金琳 主編 (2005). *op. cit.*., p. 14.
20) 『蒙史』 十九 后妃列傳 第 一, 蒙兀兒史記 卷 第 19
21) 데 바이에르 저, 박원길 역 (1994). **몽골석인상의 연구**. 도서출판 혜안, p. 149 참조.
22) 뭉케 카한 치세기에 기욤 루브룩의 『Itinerarium』은 '몽골부녀들은 얼굴에 칠을 많이 해서 용모가 흉하게 보일 정도이다.'라고 말했고, 우구데이 카한 치세기의 『黑韃事略』에서는 '婦女는 아름다운 용모(美色)를 위해 이리의 배설물(狼糞)을 얼굴에 바른다.'라 하였다. 이것은 한랭한 기후에서 얼굴 피부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해율 (2001). **몽골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1.)
23) 『高麗圖經』 第 二十 , 婦人 : 施粉無朱 柳眉半額
24) 權衡 『庚申外史』, 二十一
25) 『宮中詞』, 張光弼詩集3, 七言絶句 : .....宮衣新尙高麗樣 方領過腰半臂裁 連夜內家爭借看.....
(장동익 (1997). **元代麗史資料集錄**. 鮮于仲皓, p. 91에서 인용.)
26) 李肖冰 (1995).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美工圖書社. p. 247.
27) 李肖冰 (1995). *Ibid.*, p. 247.
28) 최해율 (2001). **몽골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2-93.
29) 홍나영 (1999). 後短 方領半臂에 관한 고찰. 복식, 44, pp. 1-2 참조.
30) 박두이 (1997). **半臂의 源流와 變遷에 관한 硏究—韓國과 中國의 半臂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9.
31) 中華五千年文物集刊 편, 손경자 역 (1995). **中國服飾 5000년**. 경춘사, p. 342.
32) 趙豊, 金琳 主編 (2005). *op. cit.*, p. 17.

33)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p. 18.
34) 박두이 (1997). 앞의 책, p. 39에서 재인용.
35) 심연옥 (2004). 앞의 책, p. 14.
36) 『高麗圖經』 第 二十 , 婦人
37) 이응해 장군묘의 방령의들은 여며지는 분량이 적고 단추의 흔적이 약 4개이며 단추고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상은 (2004). 이응해 출토복식,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pp. 127-128.)
38) 고려 봉잠,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p. 47.)
39) 하연부인의 초상, 일본 천리대도서관 소장
40) 『高麗圖經』 第 二十 , 婦人
41) 역대황후초상, 타이뻬이 고궁박물관 소장
(中華五千年文物集刊 편, 손경자 역 (1995). 앞의 책, p. 342.)